

건강 칼럼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중심에 둔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고 다시 북한이 반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까운 미래에 남북 대화·화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후 남한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협상 상대로 한국이 아닌 미국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 '패싱'(배제)을 막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남북 간에 대화·소통·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해 공존·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남북 인도주의·교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국민 불안을 키운 대북전단·오물풍선 살



정복규

논설위원

포 및 대북·대남방송의 종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에 오물풍선 도발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남한은 오물풍선을 이유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효력을 정지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복원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남한은 9·19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고, 북한은 '파기'로 맞섰다.

남한은 지난해 6월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지 및 대북방송 종단에 나선다 해도, 남북 대화 분위기 조

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9·19합의 복원을 의제로 당국 차원 회담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대화에는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

대화 제의에 북한이 침묵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정치적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은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다. 남북대화가 성사된 1971년 이후 최장기간 단절이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은 2023년 4월 7일 북한의 일방적인 차단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난관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남북 인도주의 교류도 막혀 있다.

2025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도 협력은 정부와 민간 모두 전무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수해 지원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남북 당국 간 인도주의적인 행사인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이 마지막이다.

이처럼 남북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 경우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원하고 있다.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강력한 한미공조로 우리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외교·군사 역량을 중국 역제에 총동원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지가 한미동맹 지위나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사설

전주 동암고 양복규 이사장

양복규 전주 동암고등학교 이사장은 장애인들의 영원한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1938년 순창군 동계면 관전마을에서 태어나 돌이 되기 전 아버지를 여의고 다섯 살에 소아마비를 앓았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약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중증 장애를 앓게 되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한의학 공부를 시작해 1968년 한약방을 개원했다.

1981년에는 동암고를 개교했다. 이어 1988년 전북장애인복지관과 동암재활원 등을 설립했다. 동암차돌학교는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초·중·고·전공과 특수교육기관이다.

'오랜 세월 종파를 이겨낸 단단하고 아무진 돌'을 뜻하는 '차돌'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당당히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적성에 맞춘 맞춤형 체육 교육을 실천하여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등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제13회 졸업생 전민재 선수다.

그는 2012 런던 패럴림픽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11년 연속 3관왕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학생의 잠재력을 믿는 교육 환경이 만든 성과다.

육상, 승마, e-스포츠 등 다양한 종목에서도 체육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e-스포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장애인학생 e-페스티벌 '카트라이더' 부문에서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 열린 제19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에서는 송진수, 배범준 학생이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했다.

어느 대학원생의 죽음

최근 어느 국립대 공과대학 소속 대학원생이 학교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었다. 문제는 교인이 지도교수 등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갑질 등으로 고통 받은 상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학부를 졸업한 A씨는 이 대학 공과대학 한 연구실의 석사과정 연구원이었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지만 A씨는 출근해 회계 업무를 처리했다. A씨는 SNS에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

첫 메모에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서로의 이권과 업무를 위해 나를 계속 잡아당기기만 하는 교수와 박사. 특히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모든 일을 떠넘기는 상황에 회생당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적혔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외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연구비 정산 업무 등을 처리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본래 그의 업무가 아니다.

그의 컴퓨터에는 교수가 지시한 골프대회와 칠선 잔치 플래카드 준비, 떡케이크와 족구공 등 구매·정산 내용이 문서 파일로 저장돼 있었다. A씨는 밤늦은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최근 서울에서 대기업 취업을 위한 2차 면접을 봤다. 면접 날에도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연구실 책임자인 교수와 연구교수(박사) 사이에 끼어 무리한 업무와 각종 갑질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대학 측은 두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연구실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대학원장과 인권센터장, 대학원생 대표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찰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독자제언

교통질서 확립 인식과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확립되어야 할 것중 하나가 바로 기초질서이다. 기초질서는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사회는 "안결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상존하며 기초질서 준수 의식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특히, 교통법규 준수 의식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최근 교통법규로 인한 단속 건수는 한 대당 1.5건 단속되고 있어 교통안전문화 형성에 지해가 되고 있다.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이른바 '반칙운전'은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로 이는 소소한 법규위반이지만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하는 행위이다.

이에 경찰은 5대 반칙운전을 규정하였으며, 반칙운전으로는 △끼어들기 △포라불기 △새치기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이 있다.

도로 위 기초질서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다. 각자의 역할에서 주어진 법을 지키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배려해준다면 교통사고의 위험은 현저하게 없어진다.

교통문화의 확립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결실을 보는 것으로 "나 하나쯤이야" 보단, "나라도 먼저"라는 인식과 서로 배려하는 운전 습관과 보행습관을 가져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이정우 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가면 축제에 가면 신나요”



2일(현지 시간) 베냉 수도 포르토노보에서 열린 제2회 가면 축제에서 가면과 의상을 착용한 남성이 춤추고 있다. 이 축제에서는 신성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마스크부터 세속적 의미의 가면까지 다양한 마스크가 대열을 이루어 주요 거리를 누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